

익산시 '효 문화도시' 조성

효행마을 선정 등 도시 대표 브랜드 기반 구축 박차 문헌·고문서 수집 '스토리텔링화' 작업까지 진행

익산시가 효 문화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도시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원광효도마을 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효 문화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효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의 효 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효와 관련된 문헌과 고문서 등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한다. 작업은 하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정리된 자료들은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효행 사례가 있는 마을 2곳을 익산의 대표 효행마을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대상지는 용동면 대조리와 화실리 마을이며 지난 3월 효행마을 지정 안내판이 설치돼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효행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대조리는 병중에 있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부 정씨, 화실리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아버지에게 약을 만들어 드린 효자 이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아울러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목욕복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며 4천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역 목욕업소 2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익산에 주소를 둔 직계 존·비속 등 4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70세 이상 어르신 1명 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효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효행예절 인성지도사 등을 적극 양성해 각 유치원과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시는 지역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복지 전문법인인 원광효도마을과 함께 다양한 주민참여형 효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효 문화 도시' 익산의 효행스테이캠프가 인기가 높다. 효행체험활동 등의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 유통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 "지역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

미래농정자문단 7월 정례회

익산시가 지역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는 최근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 유통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을 주제로 미래농정자문위원과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 한국농수산대학 이소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원료 곡 쌀 공급 정부안팎 관리, 익산 탐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공급, 마을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들을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는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가 교육을 강조했고 익산의 친환경 농업을 생산 뿐 아니라 유통·판매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농수산대학 이소영 교수는 저밀도 사회, 비대면 방식, 디지털 경제로 이행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전략을 미국 유통, 온라인 거래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유통·판매 정책은 농산물 생산 체계가 기본이 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 생산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역농산물의 유통·판매 활성화는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려운 만큼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경로당 운영 재개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지역 경로당의 운영을 27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별로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개방되는 경로당은 모두 773곳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임시적으로 문을 닫은 지 5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

경로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대응 매뉴얼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경로당 비상연락망 체계를 사전에 구축했으며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일 간 직원들이 1, 2차로 나눠 읍면동별로 방역물품과 방한·소독일지 비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함에 따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고 보완 조치 후 재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출입기자 간담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7일 익산시 출입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재구 의장과 의정단, 사무국장장과 사무국 직원, 출입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및 의정홍보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함께 참석한 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익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올 연말까지 50%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매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합월과 동부 등 2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전체 50종 488대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농업 현장의 어

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까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1,409명이 3,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번 혜택이 올 연말까지 있던 농기계 임대료 5.100만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5,017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2,992 농가가 이용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 한국판 뉴딜 대응 '올인'

군산시, 정책 토론회

군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선다.

오는 8월 1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강일준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주요 사업추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자립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 특히나 국

가 재정전략 수정, 한국판 뉴딜계획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전략 사업발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앞선 2시간은 정책연구 전문기관 주제로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및 분야별 변화, 국내의 선진 사례, 한국판 뉴딜 대응 군산시 주요 정책 수정과 신규정책 방향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군산시 정책자문단(단장 최연성)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호원대학교 윤진주 교수와 군산대학교 송석기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복지와 경제 분야 관련 추

진 정책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정책토론회 내용과 연계해 부서별 내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자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축소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28일에는 공모사업 및 국가 예산 사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된다. /군산=김광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